보 도 설 명 자 료
('18. 9. 1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원전 해체 인력 4년 뒤 1000명 필요한데 현재 100여명뿐 ('18. 9. 11, 국민일보)

---

1. 기사내용

□ 원전 해체 인력 부족문제

○ 정부는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, 원전 해체에 투입할 수 있는 국내 전문 인력은 부족한 실정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산업회의는 국내 원전해체 시 필요한 인력수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민간 사업자 주도하에 인력양성을 추진해오고 있음

○ 이를 위해, 2014년부터 금년 7월 현재까지 한수원 및 원전해체 관련 중소기업 인력 786명을 대상으로 원전해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

□ 아울러, 산업부는 금년 하반기 中 국내 원전해체 전문인력 현황 및 수요전망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

○ 이를 토대로 원전해체 관련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

□ 특히, 고리1호기 등 원전해체 일정에 맞추어 향후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산학연과 공동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

※ 문의 : 원전환경과 윤요한 과장/김선영 사무관 (044-203-5343)